

200자 안내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지식의 빈곤성

서광조 지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문제점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검토한 책.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과 함께 한국의 정치경제의 윤리적인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철학과현실사 / A5신 / 224면 / 3500원

유산 상속인

시드니 셸던 지음 / 정성호 옮김

「천사의 분노」 「내일이 오면」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추적」이란 작품을 완역했다. 다국적 기업의 총수인 마쓰시다 요네오 회장과 부인 에이코가 미국의 공장에 시찰을 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죽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된다. 그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긴장과 급박한 사건 전개, 음모와 모험 등이 특색을 이루고 있다.

오늘 / A5신 / 286면 / 3200원

안젤리나의 戀人

루이제 린저 지음 / 김창할 옮김

독일의 유명한 여류작가의 장편 「안젤리나의 연인」과 중편 「첫사랑」 「다니엘라」, 그리고 산문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 등을 함께 묶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소박하고 담담한 문체로 씌어졌으면서도 끈끈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특히 「안젤리나의 연인」은 반사치운동을 벌이는 케릴라의 대원인 여주인공의 삶을 그리고 있다.

친우 / A5신 / 304면 / 3200원

추억만들기

김병중 지음

74년 「文學思想」에 소설 「빨간 우산」을 발표하여 등단했던 작가가 그동안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수필들을 모았다. 따라서 문학적

40 출판저널

열정을 한껏 태우던 작가의 짧은 시절로부터, 중년의 작가로 발돋움할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엿볼 수 있다. 「슬픈 낙추주의자」 「옛 사랑의 그림자」 등 69편의 짧은 글들이 실려 있다.

심지 / A5신 / 298면 / 3200원

마지막 일기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 김동림 옮김

인도의 명상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가 만년인 87세부터 사망하기까지 구술로 녹음한 명상일기. 「과거의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가, 새로운 나날들을 어떻게 맞이하며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책세상 / A5 / 198면 / 3000원

전자도서관

Kenneth E. Dowlin 지음 / 최석두 옮김

전자커뮤니케이션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진단한 책. 미국 콜로라도주 파익스픽 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이 도서관의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전자도서관의 개념과 운영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에서 전자기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역시 사서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미무역(주)출판부 / A5신 / 248면 / 5000원

남녀 모두를 위한 간부학강의

나타샤 조세포비츠 지음 / 이일남 옮김

훌륭한 간부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부하직원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조직체 속에서 간부사원이 직접 부딪치게 되는 상하관계 · 동료관계 · 이성관계의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서출판사 / A5신 / 236면 / 3000원

조선사회경제사

白南雲 지음 / 朴光淳 옮김

1930년대 사회경제사학을 개척했던 백남운의 대표저서 중 하나로, 33년 일본어로 발간됐던 것을 우리말로 옮겨 펴냈다. 저자는 한국사를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사회구성체 5단계 발전설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원시씨족공산체의 양태와 삼국정립시대에 있어서의 노예경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汎友社 / A5신 / 354면 / 5000원

지방자치와 지도자

이병택 지음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꾀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지방자치의 문제를 정치학 · 사회학 · 행정학 · 교육학 ·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良書房 / A5신 / 430면 / 5000원

불교

찰스 프레비쉬 외 지음 / 박용길 옮김

불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순한 교리해설에서 벗어나 경전의 구성과 그 변천의 역사, 각종 승단의 형성과정 등을 흥미롭게 다룬 불교개론서. 1978년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에서 첫 발간된 책으로, 동서양의 권위있는 불교학자들의 견해들을 담았다.

고려원 / A5신 / 270면 / 3800원

존 케이플즈의 성공하는 광고

존 케이플즈 지음 / 이상우 옮김

미국 광고 카피계의 실력자로 첫손 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수백개의 성공광고들을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광고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원리를 추출해내고 있다. 「성공하는 광고를 만드는 일곱 단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법」 「지금 사도록 만드는 여섯가지 방법」 등 광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유머러스한 문체로 소개되어 있다.

오리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연구소 / A5신 / 352면 / 4000원

美國 著作權法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편역

1909년 제정된 이래 지난해 「베른협약시행법」 「위성가정시청법」 제정으로 대폭 개편된 미국 저작권법의 최근 조항들을 번역 수록한 자료집. 1984년 미국저작권법 제9장으로 편제된 반도체집 보호법도 함께 실어, 첨단기술의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했다. 저작권관계자료집 네번째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A5신 / 284면 / 5000원

헤겔哲學의 理解 및 批判

全斗河 지음

국민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헤겔철학연구에 바쳐온 40여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간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묶어 펴냈다. 「정신현상학」 등 헤겔의 주저들을 중심으로, 그의 철학체계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논문집. 부제 「그 살아있는 핵심과 현대적 의의」

중앙경제사 / A5신 / 424면 / 8000원

노래하는 방랑자

아이헨돌프 지음 / 이숙희 옮김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파작가 중 한사람인

아이헨돌프의 장편소설. 바이올린을 켜던 시골뜨기 주인공이 넓은 세상을 돌아보고자 집을 나서면서 겪게 되는 사랑과 좌절을, 자유분방하면서도 교묘한 구성과 소박한 문장으로 그린 작품이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출세할 수 없는, 바보스럽지만 순수한 젊은이의 몽상적 여행기.

서연 / A5신 / 230면 / 3000원

우동 한그릇

구리 료헤이 지음 / 최영혁 옮김

지난 2월 일본국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공명당의 오쿠보의원이 낭독, 일본을 눈물바다로 만들면서 화제를 일으켰던 「우동 한그릇」을 우리말로 옮겼다. 가난에 저들었던 시절, 설날 그림날 탐 우동가게를 찾아와 우동 한그릇을 정답게 나누어 먹는 세 모자의 동화같은 이야기다. 「산타클로스」(구리 료헤이) 「마지막 손님」(다케모토 고노스께)도 함께 수록했다.

파도 / A5신 / 140면 / 2500원

한국의 낚시터 60

박준기 지음

낚시는 정신수양을 겸할 수 있는 스포츠로 현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낚시 애호가들을 위해 풍광좋은 낚시터 60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문가용이기보다는 초보자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찾아가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대형 낚시터를 집중 소개했으며, 초보자를 위한 붕어낚시법도 안내했다.

샘터 / B6변형 / 270면 / 3000원

어떤 여자

안느 델베 지음 / 성옥력 옮김

프랑스의 여류조각가이며 로댕의 연인이었던 카미유 클로델의 생애를 소설체로 그린 전기. 안느 델베 원작 「어떤 여자」(Une Femme) 완역본이다. 카미유와 로댕의 작품연보와 관련사진, 그리고 이자벨 아자나가 주연한 영화스틸사진 등이 자료로 수록돼 있다.

예하 / A5신 / 442면 / 4500원

예수회교육의 특성

예수회 교육사도직 국제위원회 편저 / 박홍 옮김

「예수회 교육지침서」의 4백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지침서의 현대적 해석을 꾀하기 위해 예수회 교육사도직 국제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86년도에 펴낸 책이다. 최초의 예수회 학교를 세운 성 이나시오 로욜라의 교육이념과 그것이 실제적인 적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홍 신부가 번역했다.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100면 / 2500원

AULA 스페인어(종합편)

강재선 지음

세계 20여개국이 사용하며 UN공용어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스페인어 학습참고서. 모두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기본문법 설명, 문법연습, 어휘, 독해, 어휘력평가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문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종합참고서.

하다 / A5신 / 340면 / 5000원

머나먼 아오지

李乙 지음

귀순용사 류창돈씨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그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북한군 생활을 할 때부터 월남하기까지의 과정을 실감있게 그리고 있다.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부모와 형제, 여정치군관과의 사랑. 그녀를 통해 자신의 부모들이 이남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의 충격, 남한으로의 탈출 등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청학 / A5신 / 296면 / 3500원

사랑을 위한 소나타

한국여류문학인회 편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원 95인의 수필을 한데 모았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홍윤숙), 사랑(윤남경), 이십대의 사랑(이경희), 사랑과 소아극(김정숙), 여성과 청빈(임옥인), 만사가 행복이로다(오혜령), 문득 찾아드는 영혼의 바람 속에서(허근옥) 등 사랑과 꿈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366면 / 3500원

중공과 한국전쟁

히라마 쓰시게오 지음 / 黄仁模 옮김

3년2개월여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인적·물적 손실을 내고 쌍방간에 '승리없는 전쟁'의 상처를 안은 채 휴전상태에 들어갔던 한국전쟁과 중공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먼저 毛澤東 노선과 김일성노선을 비교하고, 한국전 발발과 중공과의 관계, 중공이 한국전에 개입한 배경, 그리고 중공군의 근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兵學社 / A5신 / 240면 / 4000원

韓國現代作家研究

李注衡 외 지음

故 白史 全光鏞씨의 1주기를 맞이하여 그의 제자들이 추모의 뜻으로 엮은 책. 그와 비슷한 시기에 문단활동을 했던 작가와 그 이후에 등단한 작가들을 함께 논하여, 우리 현대소설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의 문학을 새로이 조감해보고자 했다.

民音社 / A5신 / 402면 / 6500원

文學의 論理

林和 지음

월북한 시인이며 평론가인 저자의 평론집. 1940년에 간행(학예사)되었던 것을 현대어로 바꾸어 다시 펴냈다. 낭만주의론, 사실주의론, 휴머니즘론 등 다양한 문학이론이 실려 있는 이 책은 문학이론 연구의 본격적 출발이며, 문학사 연구의 방법론 수립에 있어서도 그 방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瑞音出版社 / A5신 / 504면 / 6000원

經營權과 勞組活動

鄭在勳 편저

일본의 노동법학자 香月不二夫의 「경영권과 조합활동」을 발췌번역하고, 군대군대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우리의 사례를 함께 실었다. 경영권의 의의, 경영자의 징계권의 내용, 노무지휘권과 조합 활동과의 관계,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大永文化社 / A5신 / 280면 / 4200원

무크

서울벽보 제3호(1989년 7월)

[시평] 한국연극의 기반, 대학극(한상철)
[객석에서] 기업은 연극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상열)

[특집] 옛 극장들은 어떻게 사라졌나?
지난 날의 동양극장, 시공관, 부민관 ▲좌담회 "옛 극장 구제하자!"(김의경, 강월도, 김우옥, 유민영, 이중한, 정진수, 황정순) ▲동양극장의 출현(고설봉) / 동양극장에서 시작해서(황정순) ▲지난날 동양극장의 운영실태(리보라) ▲동양극장의 역사적 의의(김미도) ▲잃어버린 극장의 이름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이강렬)

[회곡전제] 인조인간(강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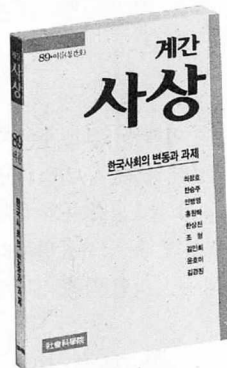
[특별기획] '89상반기의 영화결산—우리는 벗기는 영화만 만들 것인가?(채장석)

예니 / B5 / 112면 / 2900원



창간호

계간 「사상」 사회과학원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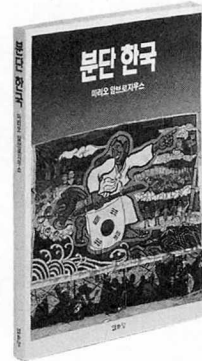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상을 다루는 계간지 「사상」이 창간됐다.

사회과학원(이사장 김준업·원장 김경

화제의 책

분단 한국

마리오 암브로지우스 지음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진집 「분단 한국」이 출간됐다. 서독의 사진작가인 마리오 암브로지우스가 오늘의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기록한 이 사진집은 88년

화제의 책

우리몸과 미술문화

조용진 지음



지난 연초 「동양화 읽는법」을 써내 큰 반향을 일으켰던 趙鏞珍교수(39·서울교육대)가 이번에는 인체를 미술해부학적으로 고찰한 「우리몸과 미술문화」를 펴내 관심을

원에서 펴내는 이 계간지는 이번 창간호에서 '한국사회의 변동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집 하에 「無思想의 사회, 그 내력과 구조」(최정호), 「정치: 민주화의 시련과 진로」(한승주), 「국가, 관료제 그리고 국민」(안병영), 「기रो에 선 한국경제」(홍원택), 「중심화 변혁모델의 탐색」(한상진), 「여성의 삶을 통해 본 한국사회 변동의 구조」(조형), 「한국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김인회) 등의 논문을 실고 있다. 아울러 윤호미씨(조선일보 편집위원)의 프랑스로 여행을 되돌아오는 글과, 20세기의 공산주의를 진단한 책 「The Grand Failure」(Z. 브레진스키)에 대한 서평 「현대 공산주의: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김경원)도 함께 실어 흥미를 돋우고 있다. 편집위원은 한승주·한상진·최정호·최상룡·안병영·김인준·김경원교수.

사회과학원/A5신/348면/3000원

서독에서 출판된 책을 이번에 수정·보완하여 한국어판으로 낸 것이다.

이 사진집에는 87년의 대통령선거 유세장, 시위현장, 경동시장, 태백 탄광촌, 청학동 마을 등을 촬영한 남쪽의 사진 110여점과,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평양시내와 만경대, 묘향산 등 북쪽의 사진 80여점이 실려 있다.

아울러 저자가 87년 북한을 다녀와서 쓴 「북한의 인상」과, 서독 ZDF방송국의 일본특파원인 키타 에더러가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보고 쓴 「남한에서의 선거」라는 글도 함께 실려 관심을 끈다.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질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열화당 / 국배판 / 176면 / 10,000원

모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剖身解眞' 즉 '삼라만상의 유추적 척도인 사람의 몸을 해부학적 분석방법으로 연구, 자연물의 형태 속에 숨은 미적 진리를 본다'는 의미로 이 책을 집필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보았나' '안면의 윤곽으로 보는 미적 가치관' '인체의 기능과 美의 상호관계' '좌뇌적 미술과 우뇌적 미술' 등 22개의 조금은 낯선 주제들이 명쾌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사진설명과 명료한 해설로 인체와 미술의 관계를 풀이해 일반인에게도 흥미로운 책이다. 동양화가인 저자는 가톨릭의대에서 미술해부학을 연구, 그동안 「佛像計測法」 「透視感覺기르기」 등 독특한 저서를 많이 펴냈다.

미술교육사 / B5변형 / 236면 / 9000원